

미주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1 개요

- 주 최 : 벤처기업협회, INKE
- 기 간 : 2004. 5. 13(목) ~ 5. 15(토)
- 장 소 : 미국 LA, IRVINE(LA근교 비즈니스 중심 도시)
- 상담회 목적 : 투자유치, 현지판로 개척, 기업간 업무제휴 등
- 품 목 : IT, 의료장비, 반도체, 애니메이션
- 참가규모 : 10개 업체
- 상담회 형태 : 사전 매칭에 의한 개별 상담회
- 현지 참가자 : 현지VC, 펀드매니저, 유력 바이어, 대형 유통기업, 현지 벤처기업 등

2 지원사항

- 소요비용의 70% 지원 : 장소 임차료, 바이어VC섭외비, 차량임대비(단체이동), 포럼강사섭외비, 환영오찬만찬비, 자료 제작비 등
 - ※ 업체별 체재비(항공, 숙박), 통/번역비, 운송비 등은 개별 기업 부담
 - ※ 단, 항공/숙박비는 단체 할인 가능
- 참가비 : 회원사(1,000,000원) 비회원사(1,300,0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홈페이지(www.kova.or.kr) 참가안내 내용 숙지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2004. 4. 15(금) 16:00 전
- 문 의 : 사업2팀 윤보인 대리 (02-6009-4100, 내선 601, E-mail : bony@kova.or.kr / fax. 02-6009-4115)

유럽 진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믿음만한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HAN-MAIN Business Center' 설명회

협회는 INKE(한민족벤처글로벌네트워크)와 함께 벤처기업들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기업 입주 전용 산업단지인 'Han-Main Business Center'(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설명회를 개최한다. Han-Main Business Center는 독일의 화학 대기업인 Hoechst社 및 마케팅/컨설팅 전문기업 DUCC, 전 세계에 500여 기술이전센터와 4000여 명의 컨설팅 조직을 갖춘 컨설팅그룹 Steinbeis Foundation의 지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반시설 제공, 컨설팅/마케팅 지원, 기술협력 및 판매망 지원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개요

- 일 시 : 2004. 4. 7(수),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분거리)

2 참가신청 및 문의

- 참가인원 : 50명 선착순
- 참 가 비 : 무료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홈페이지 참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문 의 : 사업2팀 윤보인 대리 (02-6009-4100, 내선 601, E-mail : bony@kova.or.kr / fax. 02-6009-4115)

3 프로그램

시 간	Subject	발 표 자
10:00~10:10	참석자 및 사업개요 소개	사 회 자
10:10~11:00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 전략	DUCC 전요섭 대표 (HMBC센터 운영 대표, INKE 독일지부장)
11:00 ~12:00	HMBC 소개 및 Infracerv Hoechst단지 소개, 활용사례	Hoechst Brockmeyer 박사 (Infracerv Hoechst 대표)
12:00~12:30	질의 및 응답, 개별미팅	DUCC 전요섭 대표 Hoechst Brockmeyer 박사 Hoechst Wohlers 박사 e커뮤니티 정회훈 사장

동남아 시장개척단, 성공리에 마쳐

협회 글로벌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6일까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에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파견,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참가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에 섭외된 현지 업체들과 상담회를 가졌고, 국가별로 평균 15개의 현지 업체와 미팅을 가졌다. 참가업체 중 엔알디테크(대표 신천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약 500만불 규모)사업 수주에 관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삼지시스템(대표 맹일희)과 씨아이에스테크놀로지(대표 이준)는 수출 규모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조율을 위해 현지 업체 담당자와 협상을 하고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 이쓰리넷(대표 성영숙)은 현지에서 1만달러 규모의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초록랩엠엔씨(대표 김기범) 등 6개 업체도 현지 담당자의 한국 방문 일정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